

상속세 개편, 본질에 우선해야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이혼하면 세금 없고 사별하면 세금 있다.’ 긍정성 논란이 많은 상속세 제도의 맹점 중 하나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전통적 대명제 속에서 살아 왔는데 혼인이 파탄나서 헤어지면 세금 한 푼 안내고 동고동락하며 해로하다가 사별하면 세금을 물리는 나라. 누가 봐도 이권 아니다 싶을 것이다.

상속세는 번번이 국정감사 등에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부의 세습, 부자감세, 세수감소 등의 논란 속에서 유아무야 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무드 속에서 핫이슈가 됐다. 세정당국이 나서서 기존의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사망하면서 유족들에게 유의미한 자산을 남겨 상속세 신고자가 된 피상속인은 2023년 기준 국세청 통계로 1만9944명이다. 그 해 사망자수 대비 6.8%에 불과하다. 이들 피상속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전체 세수의 2.5%선인 8조5000억원

이다.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규모의 상속세를 낸 사람은 신고자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데도 상속세에 대한 불만은 상속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현 상속세 개편의 주된 배경은 배우자 상속세 같은 불공정 부분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도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연속성을 흐르는 통에 불만을 사고 있다.

신고납세자수는 2000년 1400명에서 최근 2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는 급증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국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상속세 개편안을 찬성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71%가 원했다.

더 이상 방향성을 다룰 계획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기가 묘하다. 75년전, 한국전쟁이 터졌던 1950년에 입법한 상속세를 그동안 성역처럼 모시며 수호자를 자처해온 세정당국이 기존의 틀을 아예 뜯어고쳐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하는 발상을 한 배경이 좀 궁금하다. 탄핵 국면-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통상질서 재편 등으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판이다. 이 상황에서 불췌 유산취득세 도입

까지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야 한계치로 치닫는 주요 유권자 불만을 고려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빅매치(대선 등)에 활용 중요한 선거 자산을 챙긴다는 측면도 봤으리라. 여당인 국민의 힘측이 이번 기회에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채명대표가 나서 호응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개편이나 여타 민생법안이 쉽게 성안되지 않던 상황에 여야가 상속세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나 좀 의아하다. 그 내용을 고민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세수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세수결손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일방적 감세정책이 추가로 남발한다면 나라곳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부자감세의 편법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분처럼 법정상속분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표를 의식한 졸속 제도 개편이 이어져 그 부작용이 가장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소득세로 메꾸는 사태로 연결될 지 자못 우려스럽다.

/산업부장 skc8472@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유증’ 설왕설래



기 지 수 집
이 승 용
(산업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의 불만은 쏟아졌다. 이를 잠재우고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3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책임 경영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김동관 부회장이 매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3조6000억원의 0.1%밖에 되지 않는다. 한화측은 공식적으로 글로벌 방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입장이지

만, 결국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 내 지배력 강화 작업을 통해 승계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증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보통주 7.3%를 1조3000억원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한화에어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대부분을 투입한 거래다.

승계 전략의 일환이란 이야기 나온게 된 이유는 매입 시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입한다. 하지만 한화오션 주가의 경우 고공행진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번 지분 매수로 그룹 내 흠어졌던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로 모았기 때

문에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김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은 34.7%에서 42.0%로 늘어났다.

또한 한화에너지의 경우 한화그룹 3형제(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등)가 지분 100%가지고 있는 비상장 개인 회사다. 즉, 엄청난 현금을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한테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룹의 승계 절차는 총수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승계를 위해 주주 자금이 동원 돼서는 안된다.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기도는 세심한 자금 운용 전략을 통해 인정받는 승계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기업은 주주들이 떠나게 되어 있다.

/lsy2665@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르는척하지 않도록, 48년생 공부의 방해와 성 같은 물산, 60년생 재주가 화려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 72년생 꿈속에서 황금을 얻었다면, 84년생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해두자.



37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오니 미리 보험을 들도록, 49년생 따오기를 그리려다 집 오리를 그리는 격, 61년생 남의 비위를 맞추려니 자신의 책임, 73년생 집을 지으려면 기본설계에 충실, 85년생 이루지 못한 꿈은 늘 아쉽다.



38년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사람이 생각, 50년생 한사람에게만 많은 장점을 주지 않는다, 62년생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 방향을 찾아보자, 74년생 종일 외로운 나그네 신세, 86년생 부모님의 생전에 가르침에 감사.



39년생 조상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없어질 때를 대비해야, 51년생 사소한 일에 꼭 대들지 마라, 63년생 나이 들수록 지출은 많아진다, 75년생 머리와 꼬리 없는 생선만 낚는다, 87년생 미안박명이나 지금부터라도 모아놓도록.



40년생 산란하게 하니 일찍 귀가, 52년생 뱃속 깊이 사무친 원수를 만나는 날, 64년생 자식에게 거절만이 능사는 아닌데 방법이 없다, 76년생 보험이 무엇보다도 효자 노릇을 한다, 88년생 현한 지식을 소중히만 여기지 않도록.



41년생 집 없는 거지가 하늘을 동정하는 격, 53년생 새벽부터 상승세니 오늘은 결과를 얻는다, 65년생 부자는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데서, 77년생 그린벨트가 해지되니 황재운, 89년생 억지 부리지 말고 말머리를 돌려라.



42년생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말고 물건 정리하여 재고 파악할 것, 54년생 신발 끈을 튼튼히 매고 출발할 것, 66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게 된다, 78년생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는 있어왔다, 90년생 사직서는 쓰지 말고 출근하라.



43년생 강아지도 사람 키우는 만큼 애정이 있어야 한다, 55년생 업무의 요점을 정리하여 효율을 높여보라, 67년생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79년생 부모공경이 대를 이으니 감사, 91년생 이득이 덩굴째 온다.



44년생 조건이나 이치에 맞는 계약인지 살펴라, 56년생 조직에서 젊을수록 겸손히, 68년생 보람 없이 헛되게 나이 먹은 것이 아니다, 80년생 목이 말라도 샘물을 물려마시지 않는 정직함, 92년생 진퇴양난 속수무책을 헤쳐 나가야.



45년생 오후는 한가롭다, 57년생 달콤한 말로 하는 협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69년생 농으로 한 말이 진실로 한 말 같으니 말조심, 81년생 적금 타듯 목돈이 들어온다, 93년생 나이 들어 이혼은 신중히 현재 부인은 어진 아내이다.



46년생 인생은 이룬들 어떠리려 저런들 어떠리려, 58년생 어چه 일을 시작하자, 70년생 추수가 먼 친척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 82년생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경영이라 하는데, 94년생 평생 미련해서 유통성이 없어 한숨.



47년생 건강한 신체를, 59년생 용모가 너무 아름다우면 명이 짧다 했으니 성형주의, 71년생 입은 은혜가 생각나지만 갚을 길이 없다, 83년생 화복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95년생 객지에서 고향 생각이 밤을 지새우는 신세가 되니.



김상희의四季
남 탓 말기

주말에 광화문이며 용산, 여의도가 양단으로 나뉘어 시위가 일상이 되었다. 외출할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에는 차도 많지만, 하지만 시위 인파로 인해 마포와 여의도를 지나가야 하는 도로는 그야말로 어려움 그 자체였다. 여의도 안에 있는 백화점 쪽에서는 백화점에 나오고 들어가는 차로 인해 그야말로 혼잡이 극심했다. 필자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막히는 도로보다도 택시기사의 끊임없는 짜증 섞인 불평이었다. 차가 막혀서 택시미터가 자꾸 올라가니 조바심을 내는 쪽은 오히려 승객인 필자여야 함에도 말이다.

그 목소리에 가득 찬 부정의 탁한 에너지에 오히려 필자의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을 그 기사분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함이 분명했다. 그래서 기사분께 좀 막혀도 괜찮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해도 거의 듣도 없이 계속 낮은 톤의 혼잣말 같지 않은, 다른 차가 좀 끼어들거나 하면 더 더욱 입에 뱀 짜증의 불평이 계속되었다. 참으로 묻고 싶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하면 일이 풀리니까? 분명한 것은 불평이나 불만은 부정의 힘을 불러모은다. 압축은 어드움을 기운으로 삼는다.

불평불만 짜증 같은 부정적인 말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의 재료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극명한 예가 바로 이것이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시고 난 후 약삼백 년 후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는데, 그 당시 가장 세력이 컸다고 여겨지는 설일체유부에서 붓다가 말씀한 업사상을 발전시켜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을 설화했다. 중생의 생사유전(生死流轉)이 모두 자신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업(業)은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이다. 쉽게 말하면 욕하는 입은 욕 먹고 욕 받음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